特輯 大學附設研究所의 活性化

大學附設研究所의 現況과 문제점

洪 承 稷
(高麗大 社會學科)

1. 대학 부설연구소의 存立意義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은 일찌기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연구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research)'이라는 표제로써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주장하면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소위 '훔볼트 유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대학의 모형은 그간 가르침을 위주로 하던 전통적 대학관의 수정을 위한 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교수, 학생, 또는 대학 자체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데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오늘날의 대학을 놓고 보건대 캠퍼스 또는 학과별로 강조점이 다소 다르기는 하다. 뿐만 아니라 교수 개개인의 수준으로 환원해 보더라도 연구활동이나 발표 대신 강의안이나 수업자료 준비에 고심하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강의보다는 논문이나 용역사업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에서는 지식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은 지식 전수라는 교육 본연의 기능 못지 않게 당연하고도 긴요한 의무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훔볼트가 선언한 바와 같이 충실한 연구활동이 바로 교육에 보탬을 주기 때문이다. 지속적 지적 탐구를 뒷받침하지 않는 교육이란 피상성이나 허위성, 혹은 정체성의 늪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시일이 지나면 그것은 고작 상식에 불과한 낡은 지식을 되풀이하거나 교조화된 관념만을 강요하는 허구적 의례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진리는 기본적으로 不可知의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지식은 탐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진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활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자신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든가 또는 최소한 남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살아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은 과거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둘째, 단순한 교육 효율화라는 목적 이외에도 우리는 최근 국내외의 대부분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대학 환경의 변화로부터도 대학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새로이 인증할 수 있다. 최근 목격할 수 있는 일련의 환경 변화 가운데 아마도 대학의 연구활동과 가장 큰 연관성을 지니는 사항은 대학의 봉사적 기능에 관한 요구가 날로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그가 속한 사회와 담을 쌓고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중세대학을 구성했던 이른바 고전 4학과에 철학 이외에도 의학, 신학 및 법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주위 환경과 결연히 절연해야 한다는 상아탑적 대학 윤리는 협량한 사고를 지닌 극단주의자의 편견, 또는 지적 활동의 효용을 회의하는 조급한 업주들의 단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떻든 대학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이 날로 현실적 타당성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이 일반 사회를 위한 응용연구에 차츰 발을 들여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조짐은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반 전 화공업 기업주들이 제품 생산과 직결되는 실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용역을 요청한 역사적 사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는 그들 사회의 복지나 발전이 교육받은 자에게 달려 있다고 판단, 고급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온갖 힘을 기울여 왔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통적 대학이라고 실용적 문제를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오늘날 그러한 경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강하게, 그래서 급기야는 자체적 구속력을 지니는 하나의 의무 조항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오늘날 대학의 사회봉사적 역할이나 기능은 단지 의뢰자나 고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요구되는 것만이 아니다. 책무(accountability)의 형식으로 대학인들의 의식에 내면화되고 있는 즉,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service to interests of society)'는 봉사정신은 바로 대학 환경 변화의 주요 단면을 구성하며, 그것은 특히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크나큰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같이 교육기능의 강화라는 목적에 따라, 또는 봉사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오늘날 대학에 대한 연구활동의 기대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대학내 연구활동의 구심점이 될 대학 부설연구소의 존립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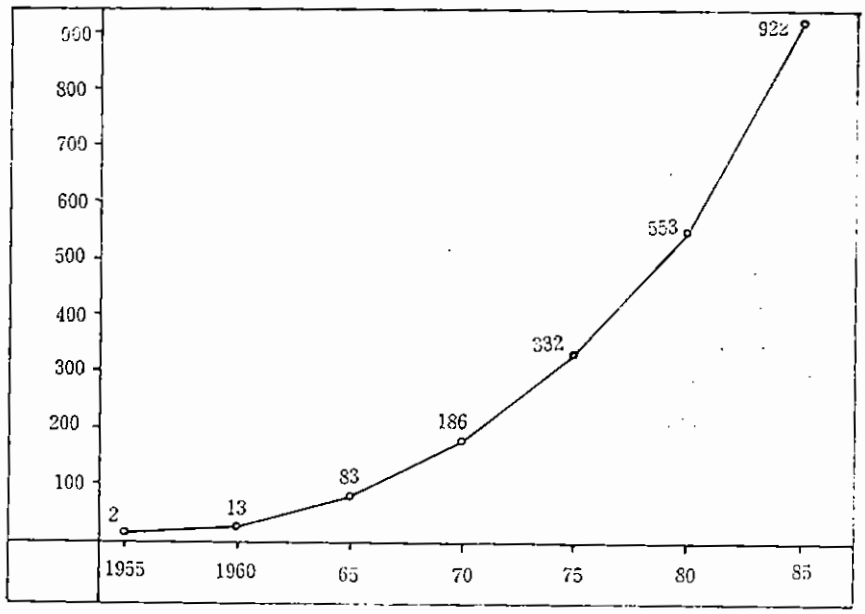
2. 대학 부설연구소의 實態

한국 대학 부설연구소의 역사는 대학 또는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변모와 전반적 맥락을 같이 한다. 해방 후에서 1950년대에는 남한의 대학은 총 19개, 그리고 대학생은 8,000명 미만이었다. 그러던 것이 6·25동란이나 정국의 혼란을 치르면서도 1960년에는 대학이 63개, 또 대학생은 1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육은 주로 '많이 배울수록 좋다'는 인간주의적 교육관에 의해 동기화 지워졌으며, 교육내용 역시 실천을 위한 것이 아닌 교양교육 정도에 불과했다. 1955년 당시 2개였던 대학 연구소가 5년이 경과한 1960년도에 단 11개로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당시의 대학관 내지는 교육관과 결부시켜 생각하면 쉽사리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공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자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동시에 대학교육의 목표도 차츰 교양교육으로부터 직업활동에 필요한 도구적 지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변화는 결국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기대상승을 초래하여 대학 부설연구소는 196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또 그러한 추이는 197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나 각종 사회정책의 입안을 위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지식을 보다 절박하게 필요로 하게 되면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그림 1).

즉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집계에 의하면 1985년 현재 전국의 대학 부설연구소는 총 922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물론 '새마을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이데올로기교육 연구소' 등의 급조 연구소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는 어떻든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위주로 한 일련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양적으로 급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계가 전체의 38.6%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문계(19.5%), 종합(10.0%), 이학계(9.3%), 공학계(7.8%), 의약학계(6.1%)의 순으로 되어 있다(그림 2).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인문·사회계 연구소가 총 수효의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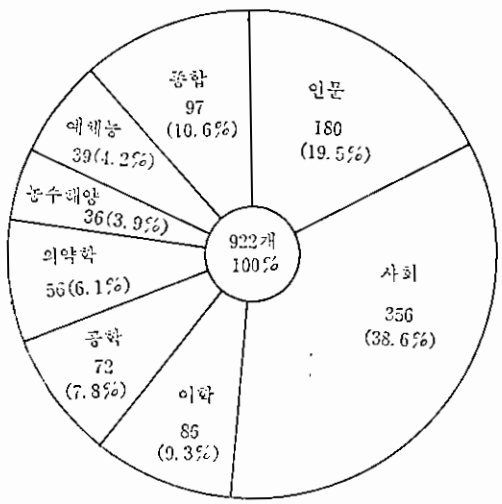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대학 부설연구소의 증가 추이(1985 년)



요성뿐만 아니라 설립이 용이하다든가 또는 학제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별도의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이 점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많은 인문·사회계 부설연구소들이 법령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칙이나 자체적 규약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연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력 면으로 눈을 돌려 보면, 연구 인원은 일견 연구소의 수와 분포를 같이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절대수를 놓고 볼 때 사회, 인문연구소가 가장 많은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다(그림 3). 그러나 이것을 연구소 단위당 연구원 수로 환산해 보면 인문, 사회계는 각기 16 및 13.3 명으로서 이는 공학계(33.4), 이학계(25.6) 및 의약학계(22.2)에 훨씬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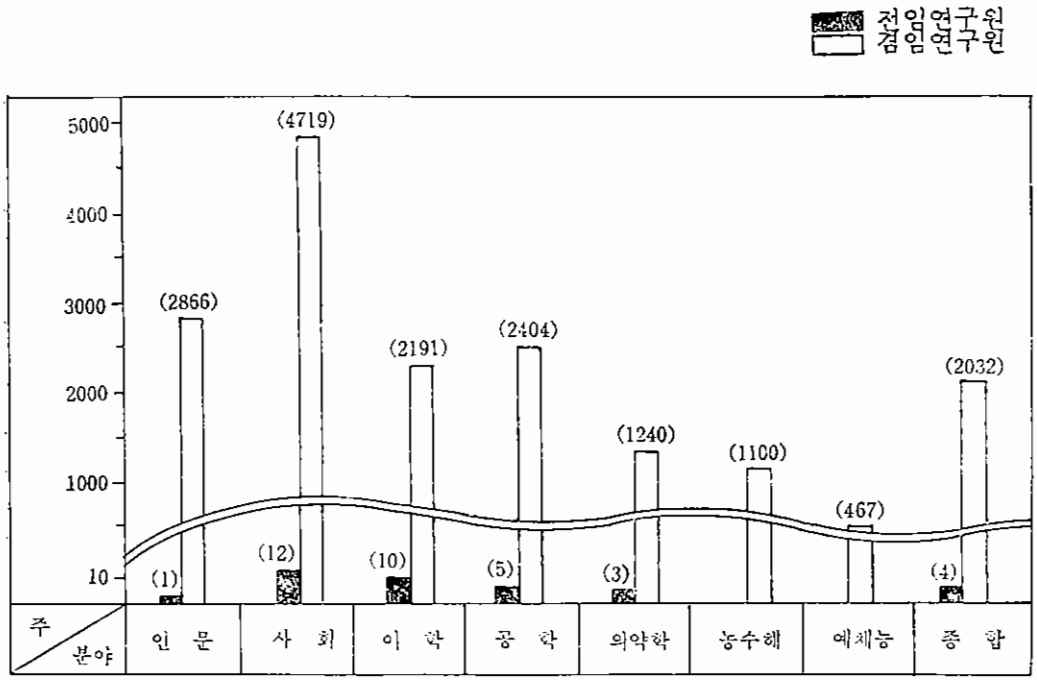
〈그림 2〉 대학 부설연구소의 분야별 분포(1985)



뿐만 아니라 그림 3으로부터 우리는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은 대부분 겸임 연구원, 말하자면 전임급 이상의 대학교수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임 연구원 대 겸임 연구원의 비율은 약 1 : 500 에 이르며, 농수해분야나 예체능계는 전국적으로 전임 연구원이 하나도 없다.

한편 학술진흥재단의 조사에서 드러난 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비를 집계해 보면 1985 년도 연간 총액은 약 76 억 원 가량에 이른다. 이 역시 절대치를 기준으로 나열해 보면 사회, 인문, 공학, 의약학 및 이학의 순으로 나타나나(표 1), 이를 다시 연구소 단위로 나누어 보면 그 순서는 공학, 의약학, 인문, 사회 및 이학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응용연구에 비해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소들이 운영 면에서 보

〈그림 3〉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 현황(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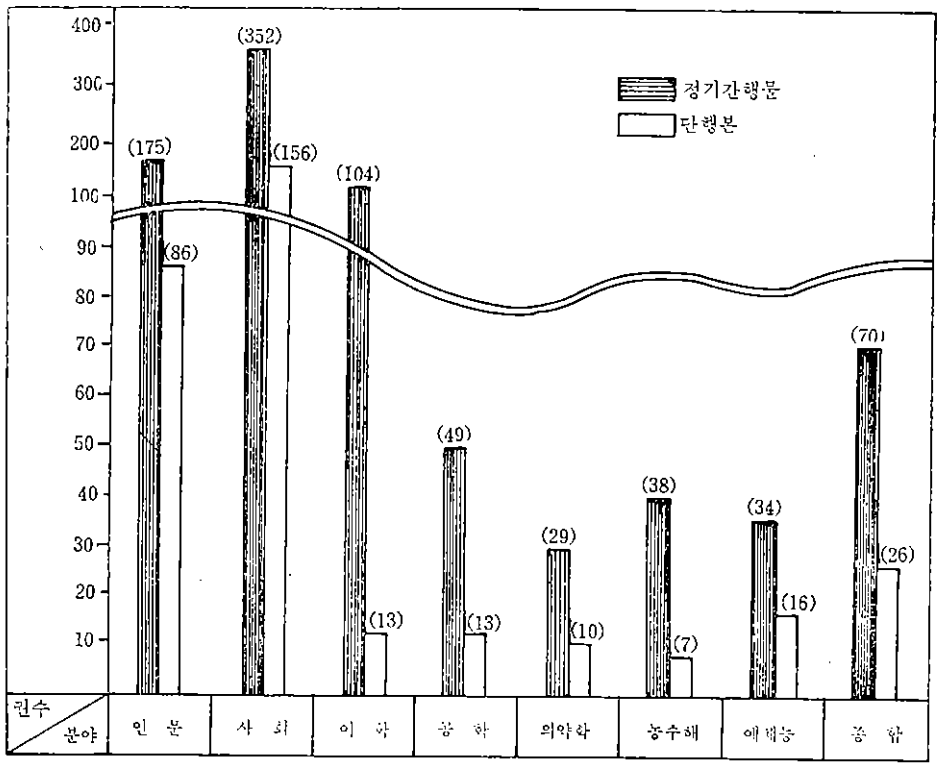
〈표 1〉 대학 부설연구소 운영비 현황(1985) (단위 : 천원)

학교별 / 분야별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계(%)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인 문	206,268	1,412,617	20,600	109,490	—	4,000	3,260	1,756,235 (23.1)
사 회	274,408	1,407,162	361,706	209,024	7,490	31,500	16,440	2,306,730 (30.3)
이 학	59,871	174,649	29,600	7,920	—	5,000	19,010	296,050 (3.9)
공 학	191,803	885,189	34,478	246,290	12,500	79,959	—	1,450,219 (19.1)
의·약 학	423,820	164,634	—	466,489	—	5,000	—	1,069,923 (13.9)
농·수 해 양	75,745	52,581	—	12,400	57,539	—	—	198,265 (2.6)
예·체 능	99,100	124,959	27,400	2,100	—	21,314	500	275,373 (3.6)
종 합	41,230	134,164	33,960	53,440	2,700	1,000	1,100	267,594 (3.5)
계 (%)	1,371,225 (18.0)	4,355,955 (57.2)	507,744 (6.7)	1,107,153 (14.6)	80,229 (1.1)	147,773 (1.9)	40,310 (0.5)	7,610,389 (100)

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76억 가량의 전체 총액을 연구소 수로 나누어 볼 때, 한 연구소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운영비는 평균 잡아 약 760여 만원 정도된다. 그러나 대학 부설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본즉, 연구소 자체가 일정액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단지 손꼽을 정도였고, 외국 또는 국내에서 고정적으로 넉넉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도 극히 적었다. 뿐만 아니라 산하 투자연구소에 대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부의 대학 연구소 지원은 그 액수는 고사하고라도 특정 대학 또는 특정 연구소에 편중되어 있어 도서 판매나 용역사업에 의한 수입마저 없는 연구소들은 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대신 대다수 연구소들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연구실 및 기본 시설 등을 제공받고 있다. 또 대학으로부터 150~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발간하는 학술지 인쇄비나 사환 급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구활동에 필요불가결한 도서 및 연구자료를 관찰해 본 결과, 항간에 알려진 몇몇 유명 연구소들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대부분 한두 개의 방만을 소유하여 사실상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심한 경우 연구소장의 교수연구실이 곧 연구소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극소수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부설연구소들은 이모저모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연구활동을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외적, 경제적 조건하에서도 대부분 연구소들이 학술지나 서적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음은 가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그림 4). 무리를 해서라도 그 일만은 꼭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논문집이야말로 연구소의 활동을 공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며 동시에 그것은 교내외 지원단체에 대한 홍보 및 활동보고의 구실도 겸하기 때문이다.

〈그림 4〉 대학 부설연구소의 도서 발간 현황(1985)



3. 提 言

대학 부설연구소의 활성화는 1차적으로 연구소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일 것이나 그것은 동시에 대학이 희망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구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을 평가하려 하며, 또 그에 따라 대학 역시 점차 자신을 연구를 위주로 하는 제도체로 일체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의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연구기능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육기능을 압도할 때 대학 강의는 두미하고 의무적인 관행으로 변모해 단기적으로는 학문세대의 단절을 또 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정신의 쇠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짙다. 더불어 봉사를 위한 연구에 집착할 때 무지불식간에 후원자와 이해를 공유하게 되어 대학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 자유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들을 십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허위보다 낫다'는 유일무이의 평범한 진리 때문에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체험을 통해 느껴 온 몇 가지 구체적 제언을 덧붙이자면,

첫째로, 대학 연구소는 응용만을 중요시 하는 일반 연구소와는 달리 보다 초연한 자세에서 기초적이며 장기적인 연구를 권장·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대학 연구소는 용역에 의해 사활이 좌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째로, 큰 종합대학의 경우 대학 부설연구소가 20~30개씩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화를 역행하자는 것은 아니나 인력 및 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성격이 유사한 연구소들은 다소 통합·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네째로, 교내, 또는 국내외의 연구소들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 즉 단속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여 온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던 만큼 대내외 유대관계를 통해 도서, 정보, 자료를 수집·완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 *